

이른 추석... 과일 값 오르고 채소 가격 하락세

크고 착색 잘된 선물용 줄고
양파·대파 등 명절특수 없어
일부 수산물 값은 소폭 상승

이른 추석으로 선물용 상품(上品) 생산량이 줄면서 사과와 배 등 일부 과일 값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하지만 명절이 지난 뒤에는 공급 과잉으로 보합세를 보이거나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파와 마늘, 배추, 무 등 채소류는 명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보면 사과(후지 10개 소매) 값은 2만7천20원(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천103원보다 4천900원 정도 올랐다. 배(원황 10개 소매) 값도 3만2천702원 수준

으로 지난해 2만7천328원보다 5천300원 정도가 상승했다.

이는 올해 추석이 평년보다 보름 정도 빨라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알이 크고 착색이 잘된 과일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추석 제사용 과일이 아닌 복숭아(백도)와 포도(캠벨, 거봉) 등은 지난해 보다 낮은 값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 가락동시장의 도매 값을 살펴 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과(홍로) 값은 5kg들이 한상자에 3만6천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추석 전 평균가격인 표준가격보다 17%정도 올랐다. 배(신고) 값도 7.5kg 한상자에 3만 197원으로 표준 가격 대비 29%정도 오른 값에 거래되고 있다.

채소류 값은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회복되지 않고 있다.

aT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고랭지 배추 1포기 소매 값은 3천75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

■추석 전 농산물 가격 비교표

품목	2019.8.30	2018.8.30
사과(후지 10개)	27,020원	22,103원
배 (원황 10개)	32,702원	27,328원
복숭아(백도 10개)	15,218원	21,032원
포도(캠벨 1kg)	5,425원	6,614원
배추(고랭지 1포기)	3,758원	8,301원
무 (고랭지 1개)	1,653원	3,892원
시금치(1kg)	17,873원	38,379원
애호박(1개)	1,453원	1,820원
양파 (1kg)	1,322원	1,574원
대파 (1kg)	2,900원	4,472원

aT운영 농산물유통정보(소매 기준)

천301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3천892원 하던 고랭지 무는 1개 1천 653원에 거래되고 있고, 1천820원하던 애호박 값은 1천453원에 팔리고 있다.

시금치 값도 지난해 1kg 3만8천379원에서

46% 정도 내린 1만7천873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파와 마늘 값도 1kg에 각각 1천322원과 2천 900원에 판매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락동 시장의 채소류 경락가격을 보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배추 10kg들이 1방에 8천829원으로 지난 3년의 평균값인 표준가격의 80%에 불과하다.

무 값도 18kg에 1만433원으로 표준값의 77%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이어 대파는 표준값의 84%, 간마늘은 67%에 판매되고 있고 양파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석 성수품 가운데 냉동명태가 표준 가격 대비 12%정도 올랐고 생오징어는 46%, 김 값도 48% 정도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전남농협 양유수 원예유통과장은 "빠른 추석으로 일부 상품 과일 값이 올랐지만 명절 이후에는 공급량이 늘면서 보합세를 보이거나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출기자 doul18309@srb.co.kr

추석 특별안정자금 100억 지원

전남도, 최고 3억원 한도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자금 수요 급증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총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매출액의 50% 내에서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주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주 2년분할상환으로 사용 가능하다.

전남도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일반기업은 2.5%, 우대기업은 3.0%를 이차보전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1%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방문 또는 등기로 신청하면 된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유관기관과 원산지 일제 단속

광주세관, 제수용품 거치포스트 등 예방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냉장명태, 냉장갈치, 목기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예방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광주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 유통 수입수산물 중 일본 산 활(活)가리비 등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원산지 제도 및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을 홍보·계도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무료 전기 설비 봉사 활동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전연수)는 '2019년도 전남도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 점검, 개보수 및 생활에너지 복지사업'의 하나로 2일 장성군 동화면과 서삼면에서 전기사랑 봉사단(단장 정병섭), 한전 장성지사와 합동으로 무료 전기 설비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이 사는 가구를 주 대상으로 이뤄졌고 전남도회는 20여 가구의 노후되고 불량한 전기 시설을 무료로 점검 및 보수해 줬다. 특히 전연수 회장은 이날 봉사대상 가구와 황룡시장에 소화기 100여대를 기증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농산물 수급 현장 의견 청취

aT, 지역조합장 초청 토론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일 농산물 수급사업에 대한 지역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광주전남 농협 발전협의회 초청 수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 농협발전협의회 소속 16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aT의 농산물 수급정책 추진현황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특히 ▲정확한 정보 기반의 수급정보의 고도화 ▲품목 주산지별 적정생산 유도 ▲비주산지의 적정 품목 발굴 ▲식품가공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과잉생산 품목의 수출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곡성 옥과농협 구정훈 조합장은 "품목별 최저가격제 확대시행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작황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병호 aT 사장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늘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출기자 doul18309@srb.co.kr



추석 맞이 홈삼 사세요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가 중소기업인 강개상인과 손잡고 홈삼 자체 브랜드(PB) '신세계X강개상인 홈삼 4종'을 선보이고 있다. 명절을 맞이해 신세계에서 선보이는 이번 자체 상품은 신세계 바이어가 6개월에 걸쳐 상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제품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국세청 "6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전국 473만가구 5조300억원

앞당겨 추석 전인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총소득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금·종교인소득 등)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국세청은 전국 473만가구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천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천273억원이 돌아간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가위 생활 자급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지급 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인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의 홑·맞벌이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가 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신청 대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는 물론이고 ARS 조회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473만가구 5조300억원
홈택스·ARS로 대상 확인 가능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2019 평화·통일·화합으로 가는 영·호남 관광문화예술박람회

2019 통일로드 시민기자단 3기 출정

"ACC에서 DMZ 까지"

일 자 3회차 : 2019년 9월 28일(토) ~ 29일(일) / 1박 2일

대 상 3기 추가모집 약간명(선착순)

참 가 비 없음

준 비 물 필기구, 메모수첩, 개인 기호품

주 요 일 정 무등파크호텔 - 특강 - ACC - 미디어센터 - DMZ - 도라전망대 - 제3땅굴 도라산역 - 임진각 외

참가자 제공 리무진버스, 아웃도어티셔츠, 기념품, 입장료, 우수참가자 시상, 통일홍보대사 수료증 수여

접 수 문 의 통일로드 시민기자단 사무국 062.372.3210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주관 | 광주평화재단 (사)엠디에스엔씨